

무안고구마 브랜드 가치 높였다

연꽃축제서 주제관 운영 ‘호응’
포토존·체험존 조성 추억 선사
느린엽서쓰기 체험 관람객 호평
하반기 무안푸드축제 개최 예정

무안군과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추진단이 제 25회 무안연꽃축제 기간동안 무안고구마 주제관을 운영해 지역민은 물론 관광객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27일 무안군에 따르면 이번 주제관은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의 일환으로 무안고구마 홍보를 위해 기획됐으며, 특별한 추억을 선사하는 포토존과 무안고구마를 오감으로 느끼는 체험존으로 구성됐다.

포토존으로는 고구마 형태의 철골 구조에 500kg 분량의 무안고구마를 표면에 둘러쌓아

만든 3m 높이의 대형 고구마조형물을 시작으로, 관람객들이 직접 고구마 모양의 용지에 무안고구마 오형시를 작성해 나무에 걸어보는 이벤트를 통해 주렁주렁 열매를 맺은 고구마나무도 포토존으로 활용됐다.

또한 주제관 안쪽 한 면 전체를 산타마를 배경과 눈사람, 크리스마스트리 등 장식을 통해 성탄절 분위기를 연출한 포토존 조성으로 더위에 지친 축제장 관람객들로 하여금 한겨울의 크리스마스를 소환해 잠시나마 무더위를 잊도록 하는 신선한 쾌적함을 선사했다.

아울러 관내 고구마 생산농가들의 종이 포장상자를 한데 모아서 전시 연출한 이색적인 포토존은 고구마 홍보효과와 더불어 그 현황을 한 공간에서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했다.

체험존에서는 주제관 안에서 촬영한 사진을 즉석에서 인화해주는 무안고구마 인생네컷이 많은 인기를 끌었다.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 관련분야 액션그룹(쿠깁아트, 약실엘랑)과 연계한 고구마 컵케익

·마카롱 쿠키체험과 관상용 고구마꽃, 당조고추 모종심기 체험을 통해 다채로운 즐길거리도 선사했다.

또한 관내 고구마 생산농가인 행복한고구마의 엽서를 활용해 성탄절에 크리스마스카드를 보내주는 느린엽서쓰기 체험 역시 관람객들에게 호평을 받았다.

김명진 추진단장은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 일환으로 지역의 축제와 연계해 무안고구마의 우수성을 지역민과 관광객에게 널리 홍보하기 위해 고구마 주제관을 기획한 것이 큰 호응을 이끌어 냈다”며 “앞으로도 지역축제 연계와 더불어 다양한 방법으로 무안고구마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융·복합 산업화를 이루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무안군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추진단은 올해 하반기 무안 고구마를 비롯한 다양한 지역 농·특산물을 활용한 무안푸드축제를 무안읍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무안=박주현 기자



무안연꽃축제 기간동안 무안고구마 주제관을 운영해 관광객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무안군 제공

현대삼호중, 업무용 전기차 전환 본격화

현대삼호중공업이 지난 3월 조선업계 최초로 ‘한국형 무공해차 전환 100’ 사업 참여를 선언한 가운데 최근 EV 화물차 3대를 도입하는 등 전기차 전환을 본격화하고 있다.

현대삼호중공업은 최근 회사 본관에서 김형관 대표이사를 비롯해 우승희 영암군수 등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한국형 무공해차 전환 100’ 차량 도입 행사를 개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에 도입된 차량은 현장 지원에 활용될 1톤 화물트럭 3대로 모두 친환경 전기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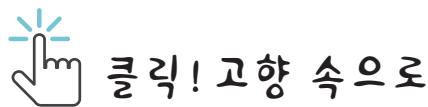
영암군은 환경부의 전기차 구입에 대한 국비 보조금 지급을 지원했다.

현재 현대삼호중공업이 사내에서 운용하는

차량은 총 117대로 올해를 시작으로 2025년까지 32%, 2028년까지 70%, 2030년까지 100% 무공해차 전환을 완료할 계획이다.

현대삼호중공업의 관계자는 “최근 이상기후로 기후변화 대응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 강조되고 있다”며 “친환경 분야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구축한 회사답게 무공해차 전환에도 조선업계를 선도함으로써 기후변화 대응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영암=최복섭 기자



클릭! 고향 속으로



담양군이 최근 무동마을을 무등산권 세계지질공원 지오빌리지로 지정했다. /담양군 제공

제2호 무등산권 지오빌리지 담양 무동마을 지정 협약식

담양군은 최근 가사문학면 무동마을을 무등산권 세계지질공원 지오빌리지로 지정하고 마을회관에서 마을대표와 협약식을 진행했다.

지오빌리지(Geo-Village)는 무등산권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안에 있는 지질·생태·문화적 특성을 활용해 새로운 형태의 지질관광을 제공하는 마을이며, 2020년 용면 도래수 마을을 지오빌리지 제1호로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

수령 320년의 느티나무 보호수가 자리 잡은 무동마을은 무등산 자락의 지질명소로 잘 알려진 신선대 및 석재편이가 가까이 있으며, 비가 오고 운이 좋으면 70m 길이의 시무지기폭포가 장관을 이루는 모습을 볼 수 있다.

무동길을 탐방하는 탐방객이 거쳐 가는 코스이며, 화순군 예비 지오빌리지 이서마을과 연결하는 위치로 지질공원 명소로 손색이 없다.

앞으로 무동마을은 안내판 설치와 주변 환경 정비, 지오토론티 및 지오토레일 행사를 개최해 무등산권 세계지질공원과 지오빌리지 마을을 홍보하고, 지역특산물과 연계한 지오파트너 상품을 개발해 주민 소득향상에 기여할 계획이다.

담양군 관계자는 “지역주민들과의 소통을 통해 무동마을 주민과 관광객이 상생하는 성공적인 지오빌리지로 가꿔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담양=정일열 기자

신안, 1004몰 1주년 성과 보고회 열려

신안군은 최근 농어가 소득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개설한 농수특산물 온라인 쇼핑몰 ‘신안 1004몰’ 1주년 성과보고회를 개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날 보고회는 지역 농협을 비롯한 100여개 업체가 참여한 가운데 위탁운영사로부터 1년차 완료보고 및 2년차 운영계획, 입점 업체의 유통마인드 교육이 열렸다. 이어 상세페이지 제작지원 안내, 입점 업체 애로사항 등을 청취

하고 문제점 개선과 신안 1004몰 운영의 업그레이드를 등을 위한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박우량 군수는 “신안1004몰 입점 업체 여러분이 한마음으로 고품질 상품을 준비해 신안군 농수특산물의 우수성을 널리 알려주셔서 감사드립니다”며 “신안1004몰이 친환경 농수특산물의 제품 다양화와 신선제품 개발, 소포장화 등 소비자 기호에 맞는 품질 고급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신안=이주열 기자

나주천연염색재단, 내달 문화상품공모전 개최

(재)나주시천연염색문화재단이 8월 중 ‘마한을 공예로 담다’를 주제로 대한민국 천연염색 문화상품 공모전을 개최한다.

재단은 오는 8월 8일부터 27일까지 ‘제17회 대한민국 천연염색문화상품대전’ 공모전 작품을 접수한다고 27일 밝혔다.

천연염색 분야 국내 유일,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이번 공모전은 재단에서 천연염색 디자인

너 발굴·육성에 따른 천연염색 문화, 산업 발전을 위해 지난 2006년부터 개최해오고 있다.

작품 출품은 1인당 2점으로 공통 출품작은 2명으로 제한한다.

국내·외 이미 상품화됐거나 타인의 작품을 모방한 작품, 타 공모전 출품작, 미공양속에 유해 되는 작품 등은 공모 대상에서 제외된다.

/나주=조충권 기자



장흥 님프만 김종근 대표, 1천만원 기탁

장흥군 님프만 김종근대표가 최근 어려운 이웃을 위해 써달라고 후원금 1,000만원을 유치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기탁했다. 김 대표는 지난 2007년부터 매년 사업 운영의 수익금 일부를 장흥군에 기탁하고 있다.

김종근 대표는 “내가 행복해지려면 내 주변 사람이 행복해야 한다”며 “코로나로 어려운 지역사회 나눔의

마작물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문수연 유치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 공동위원장장은 “김종근 대표의 성금 기탁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기탁한 후원금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연계해 유치 지역 저소득계층 및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 지원에 소중히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장흥=이옥현 기자



소아암 이웃돕기회, 강진군에 기부금 전달

강진군은 최근 소아암 이웃돕기회가 소아암 및 희귀난치성 질환으로 힘들어하는 환우를 지원해 달라며 100만 원을 기탁했다고 27일 밝혔다.

소아암 이웃돕기회는 8명의 회원으로 구성됐으며, ‘김영수와 통기타 친구들’이라는 이름으로 2015년부터 매주 주말 가우도에서 소아암 환우를 위한 버스킹 공연을 하는 통기

타 동호회 단체로 지역사회에 귀감이 되고 있다.

소아암 이웃돕기회 관계자는 “어려운 가정형편으로 인해 치료를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회원들의 재능을 활용해 도움을 주고 싶었다”며 “작지만 아이들이 힘을 내고 꿈을 향해 나아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강진=한태선 기자



민주평통 신안군협, 자문위원 위촉식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신안군협의회는 최근 신안군의회의장실에서 자문위원(지방의원) 위촉자 전수식을 가졌다고 27일 밝혔다.

이번에 위촉된 자문위원은 지방의원 9명으로 임기는 내년 8월 30일까지다.

이날 위촉장을 전수한 박우량 군수는 축하를 통해 “민주평통 지역 대표

자문위원으로 위촉되신 분들께 축하드립니다”며 “한반도 평화와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다양한 사업에 적극적인 활동을 펼쳐 갈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조영훈 협의회장은 “의정활동과 더불어 민주평통에 많은 관심을 가져 다양한 통일 사업 전개에 힘써 주실 것”을 당부했다. /신안=이주열 기자